

우리 모임예선

경북련 훈할머니회원 추진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는 9월 27일 마산에 있는 훈할머니를 방문하여 환담하고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련은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훈할머니 초인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련은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불교와 가정'(박선영 동국대교수) '불교와 시민사회의 오늘과 내일'(김동훈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의 강좌로 불교시민통신대학을 개설한다. 또한 조만간 '생활속의 선체조 강좌'를 열 예정이다. (053)353-1597

호불련 경찰가족 도와

호남불교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호남불교발전연구회(회장 정준모)는 광주 서부경찰서 양3과출소 최명석 경찰장의 둘째 아들 준용군(생후 2개월)이 산전성 심장병 수술을 받고도 수술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성금 62만원을 전달했다. (062)361-2287

광명회 개안수술 100여명

새생명광명회(봉사단대표 김기원)의 도움으로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이 9월말 현재 100명 넘었다. 또한 심장부전증 등 각종 질환에 대해 검진·치료 등을 받은 수혜자는 모두 16,968명에 달했으며, 사후안구 기증자도 2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김기원교수는 89년도에 간로심장회를 설립 환자 108명의 심장수술을 도운 바 있다. (0591)758-6611

녹색감시단 불국사 정착

대구불교안악회 부설 녹색감시단(단장 홍성식)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 산하 청소년환경감시단은 26일 경주 불국사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다. (053)556-3553

구미운불 월정사 순례

구미택시운전봉사회(회장 이춘도)는 23일 월악산 월정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매일 둘째 화요일 도리사 등 구미·선산 지역 사찰에서 순례법회를 열고 있는 회회는 내달중에 불우 이웃 돕기도 실시할 예정이다. (0546)53-3244

노인무로 합동결혼식

포항학산복지관(관장 난승스님)은 17일 노인무로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생계곤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부부 10쌍이 초대된다. (0562)48-6165

캠퍼스 불심 이끄는 포교사

탐방 서울대 불이회

새학기가 시작되지 얼마되지 않은 9월 28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직원불자회인 불이회(회장 송해균 교수) 회원과 가족 50여명은 경기 이천의 실봉산 깊은 계곡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영월암을 찾았다. 일요일 새벽 일찍 서둘러 출발해 오전 9

시각을 순례하면서 큰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때때로 방생법회를 열어 불심을 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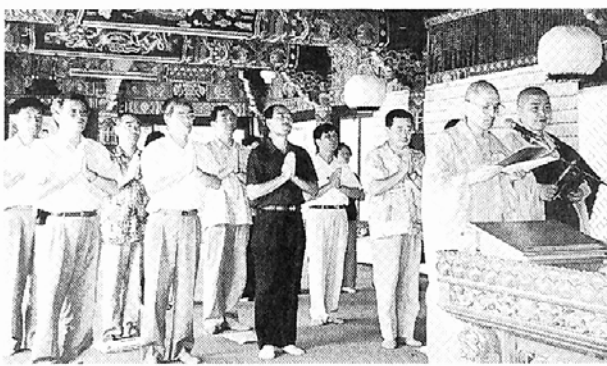
불이회는 지난 9년 4월 29일 청계사 지명스님을 증명법사로 신홍사 가람빈가 합창단의 축하속에 뜻을 올렸다(초대회장 안원영교수, 현재

교수등 회원50명... '일당백 불심' 자랑 가야산 골프장 반대 등 환경운동 앞장

시 30분에 도착, 10시30분에 사시마 지예불을 올리고 오후 12시에는 모처럼 발우공양을 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불이회와 인연이 깊은 지도법사 정무(전 용주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었다.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덕있는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사찰 순례법회는 불이회의 가장 중요한 공식 행사. 매달 가족을 동반, 신홍사 용주사 봉선사 청계사 등 주변

회원수는 교수 24명(전체교수 130명)을 포함한 50여명.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회원들은 일당백의 불심을 자랑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회원으로서 대장경 전산화에 일조하고 있는 안원영교수(임상가공학), 신홍사 신도회장으로서 매일 영불과 5분향례 반야심경 독송을 쉬지 않는 전제근교수(식품가공학), 조계종 포교사로서 경을 강독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류재홍씨(전기기사) 등이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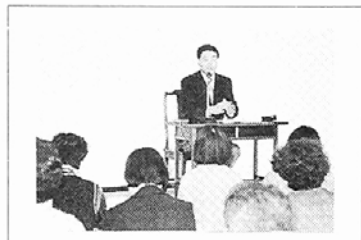
특히 전제근교수는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이회 회원들은 각자 배운 불법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한편, 지성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역할도 게을리 않는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금산사 앞 모악랜드 조성반대 서명과 가야산 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을 전개했다. 특히 가야산 골프장 반대 서명에는 서울대교수 300명을 참여시켜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었다.

수원=김재경 기자

“리더십 자질은 자비와 사랑”

지광스님 청불회 초청법회서 법문



“진실한 말은 항기지녀” 이계진씨 길상사 법회서 강연

“말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붙어 나는 말이 항기롭고 좋은 말입니다.”

2일 길상사(주지 청학) 창건기원법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이계진 아나운서는 진실한 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오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로의 말을 많이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학스님을 비롯 윤정광(방송심의위원)씨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지광스님

“지도자는 진실의 파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모술수는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기에 리더의 자질은 자비와 사랑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9월 27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열린 청와대불교신학회(회장 박세일) 순

충북불교교양대학 개교 거사불자 60% 눈길

9월 22일 개교식을 가진 제천 한산사 부설 충북불교교양대학(학장 각철스님) 입학생 중 2/3가 거사불자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입학생 300여명 중 거사는 180명으로 이는 불교교양대학 입학생중 대다수가 보살이란 점에서 보기도 든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일 개교기념 송산(화계사 주지)스님 초청 발심대법회에서는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충북지역 거사불교의 중흥을 다짐했다.

충북불교대는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고승 초청 발심대법회를 열어 중부권 불교중흥에 나설 작이다.

제천=김원우 기자

“정신장애인 불심으로 재활”

청계사 교계 첫 정신지체시설 ‘녹향원’ 운영

군포 청계사(주지 지명)가 교계최초로 정신지체아수용 전문시설인 녹향원(운영이사 정경자)을 인수하고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계산 중턱에 자리잡은 녹향원은 대지 5백여평 건평 90여평에 2개동의 숙사가 있으며 5명의 지체장애인에 1명의 보육사가 거주하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녹향원은 뇌성마비환자 12명이 수용돼 있으며 무인기 시설이어서 관계자들의 어려움도 큰 편. 프로그램은 신변처리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언어훈련, 직

업기술훈련, 미술 음악 직업 운동을 통한 정서안정 활동력 강화운동 등 다채롭다. 녹향원운영의 어려움은 불교시설로 되면서 인건 기록과 봉사단체의 손길이 끊어져 원생들의 의로움이 크다는 것.

정경자 이사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훈련의 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30명의 1개동 숙사를 90평으로 증축하여 30여명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원우 기자



덕암스님 '원용불교의 실천' 출판회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덕암스님의 '출가 70주년 고승평전(원용불교의 실천) 출판기념법회'가 9월 28일 태고종 법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해초스님(前 태고종총무원장), 조무공스님(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서문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한성법사, 오현근교수(동국대), 권기종교수(동국대)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이어 '대승사상과 원용불교' '현대불교와 사찰운영법' 등 기념특강도 진행됐다.



봉해스님 일불선교종정 취임식

일불선교종 봉해스님 제2세 종정 추대법회가 9월 26일 울림피아호텔 본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무학(총무원장) 동명(종회의장)스님 등 종단 관계자와 영명(법상종) 일광(원용종) 대신(삼본종) 운파(조동종) 성도(대승종) 김경태(한국법화종) 등 각 종단 종정스님 및 보인(원용종) 송정(조동종) 남정(총화종)스님 등 총무원장, 서한생의원(신한국당)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실천승가회 통도사서 정진도량

실천불교전승승가회(공동회장 청화·지선) '97 추계정진도량'이 '종단개혁 3년에 대한 평가와 중무량정 발전전략'을 주제로 9월 30일~10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진도량에는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 종회부의장 법등스님, 종회의원 지홍스님 등 3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리더십 평가' '종단 인사정책의 현황과 과제' '종단의 재무관리 시스템의 평가와 전망'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동산불교대 美LA 분교 개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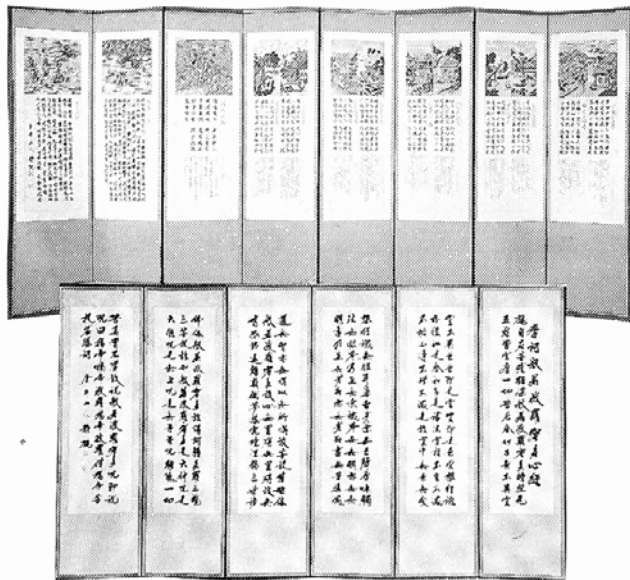
동산불교대 미국 LA분교(학장 도안스님·관음사 주지)는 9월 21일 LA관음사에서 개교식을 거행했다. 김재일법사의 '해외지역 불교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겸한 이번 법회에는 학장 도안스님을 비롯 김재일(동산불교대 이사장), 김인수(LA분교 교무처장)법사 등 교민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정신지체시설 녹향원은 인원은 적지만 다중중후군 환자까지 있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어느 곳보다 필요하다.

『국내 최초 고급비단천 10색칼라 완제품』 석가 세존 일대기 팔상록 부모은중경(금강경 반야심경) 8폭 병풍 보급

▼ (전면) 부모은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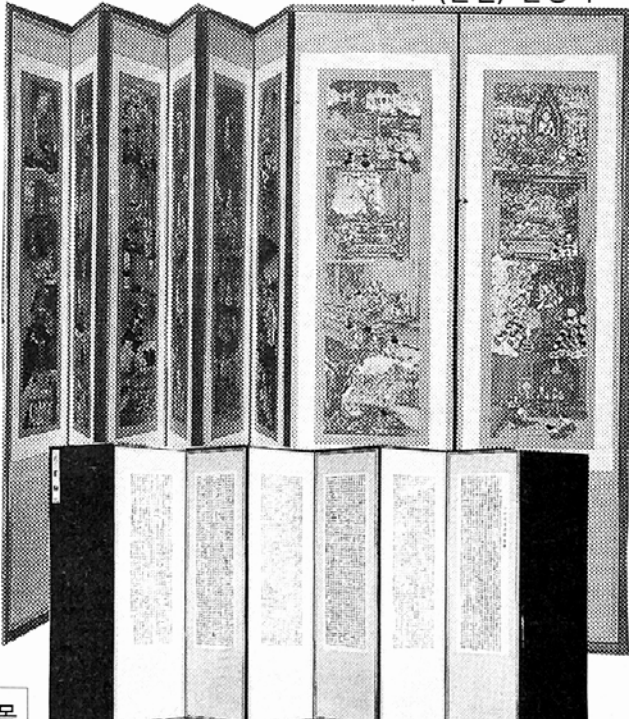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본 성불봉사 포교원은 2,000만 불교도의 불심정진과 바른신행생활을 위하여 우주의 근본이며 사생의 자부신 석가세존(부처님)의 장엄하신 위엄과 구도물 넉리 깨닫게 하고저 -순의 포교 차원에서 전통문화와 공예품을 발굴하여 작가의 독특한 예술적 정화를 통해 하나하나 불교혼을 불어 넣어 실체감 있게 살아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 -품씩 소장하시어 항상 직접 보고 깨달음으로 더욱 크신 佛心 경지를 달하게 할 것이며 특히 佛心을 모르는 수많은 중생들까지 佛心을 심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모두 이루시고 佛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분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특별 할인 가격 (신용카드 18개월 할부가능) ● 팔 상 록 : 360,000 ● 부모은중경 : 380,000

성불 봉사 포교원

■ 문의처 : 02)831-2848~9 / 02)831-7075
수신자부담 전화 : 080)284-2848
■ 팩 스 : 02)831-2849



▲ (후면) 금강경

▲ (후면) 반야심경

● 작품규격 : 5.5尺 × 폭 12尺 ● 표구재질 : 고급실크지 수입스기목